

독일의 음주문화와 음주문제 대책



조 성 기
(KODCAR 연구개발본부장)

■ 目 次 ■

1. 음주문화 변화의 성공사례인 독일
2.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이 술소비량 증가의 포화점인가?
3. 독일인의 주종별 음주선호와 선호도의 변화
4. 여성음주와 청소년 음주는 독일에서도 큰 문제
5. 독일의 술집들과 음주의 역할
6. 악명 높았던 독일 음주문화의 현장인 '펍(Pub)'
7. 독일 음주문화의 명암과 과제
8. 독일에서의 음주문화 변화 노력

1. 음주문화 변화의 성공사례인 독일

독일인은 생활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매사에 격식과 진지함을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바로 술에 취한 경우이다. 작년 6월 월드컵 축구에서 브라질에 독일이 패하자 술 마신 만하임의 시민 1명이 사망했고, 독일 전역에서는 900여명이 난동죄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 이외에도 함부르크에서는 경찰에게 돌과 병 조각을 던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라이프치히에서도 폭력으로 다치고, 자동차나 점포 파손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분단시절 독일인들에게 많은 술을 마시게 한 동서베르린의 장벽과 유명한 브란덴부르크문

최근에는 많이 변했지만 유럽에서 독일은 오랫동안 음주문화가 좋지 않은 나라로 악명이 높았었다. 그런데 독일인들이 대중 앞에서 문제 있는 음주행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었다면 의아해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와도 같이 그런 태도를 보였던 독일이 어떻게 대체로 점잖은 음주문화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음주문화의 변화에 관한 한 독일은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취한 상태에서 술집이나 군중이 모여 있는 길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싸우고,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로 시작한 싸움이 심한 사고나 죽음에 까지 이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좋지 않은 음주문화가 로마의 시이저 이래로 독일에 일반적이었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음주와 만취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는 독일사에 빠짐없이 이어 내려온 사실이고 최근까지 그러한 문화가 존속하였었다. 그러니 월드컵 때 발생한 사고는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니 독일사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와인이나 맥주, 증류주의 폐해를 이야기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500년대에 종료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는 당시 와인 음주자들을 ‘포도주 푸대’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술괴래(Weinschlauch)’라고 불렀다. 그리고 “음주는 우리나라에 일종의 페스트인데, 이는 신이 노해서 우리에게 보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독일의 음주문화는 “외부로부터의 압력, 경고조치, 처벌, 그리고 개신교적인 근검정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선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1850년대에는 증류주가 범람하여 문제가 되었고, 1880년대에 카우츠키는 노동자들에게 맥

주음용을 통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19세기 말 공산주의 사상가 엥겔스는 술이 독일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예전의 잔치에서 볼 수 있던 기분 좋은 안락함 그리고 드물게 나타났던 무절제한이 이제는 칼부림이 빠지지 않고, 살인사건이 점점 더 자주 빈발하는 폭력적이고 황량한 잔치로 변하였다.” 나중에 이러한 광폭함이 독일의 도덕재무장운동을 유발시키지만 독일의 음주폐해는 실로 가관이었다 한다.

19세기 이래로 지금과 같은 음주습관이 형성되어 왔는데, 라인밸리, 쉬바비아, 팔라티나트 지방과 같은 와인생산지역, 엘베동부인 증류주 생산지역, 바바리아, 베를린, 기타 서부공업지역인 맥주생산지역 등 지역별 음주형태가 달리 형성되었다.

전통적인 음주습관이 남아있는 경향성은 나타나고 있지만 산업화가 진전 되면서 지역간 사회계층간 차이가 점차 평준화되었다. 또한 지역별로 각기 자기 지방의 술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이 술소비량 증가의 포화점인가?

독일의 알코올 소비량을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1인당 소비수준이 1900년 이래로 변화하고 있으며 1950년 이후 그 변화가 급격함을 알 수 있다.

알코올 소비량을 재는 척도인 100% 순알코올을 기준으로 할 때 1900년대에 1인당 소비량은 10리터 정도였다. 독일인의 음주량은 1차 세계대전 때 급격히 하락했다.

1920년대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1930년대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알코올 소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거의 술을 마

〈 표 1 〉 1인당 연간 음주량 (1900년-1990년)

단위 : 리터

주종	1900년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맥주	125.1	38.1	95.6	141.1	145.7	143.1
와인	6.7	5.1	16.0	19.5	26.6	26.1
증류주	11.1	3.0	5.1	7.9	8.8	6.2
순알코올량	10.1	3.3	7.8	11.4	12.7	11.8
1인당 소득 (U \$)	-	-	4,332	8,745	18,510	29,569

시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다. 1950년대에 음주량이 3.3리터 정도로 회복되었고 1980년대에 12.7리터를 고비로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험을 볼 때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되면 음주문화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이 다수 발생하여 음주소비량이 감소세를 나타낼 것인가?"라는 가설을 수립해 볼 수 있겠다.

2차대전 이후 독일은 소득수준이 급격히 증가했고 마찬가지로 음주량도 증가하였다. 여성들도 남편들이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주로 마셨지만 점점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마시는 빈도가 늘어났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소득의 증가와 소비량의 증가가 일정한 율의 비례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1970년대나 1980년대에는 그러한 관계가 사라져 버렸다. 1980년대 이후 알코올 소비량이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인지 1970년 이후에 음주량이 어떤 정형화된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추추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2000년 대 이후의 자료가 조사되어 좀 더 관찰해 본 후에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 사람들의 경우 전시에 극도로 음주를 절제하였고, 전후 경제적 성장과 함께 음주량이 급팽창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징후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음주와 경제와의 관련성이 국가간 차이 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3. 독일인의 주종별 음주선호와 선호도의 변화

독일에서 주종별 음주성향의 변화는 1840년 이후에 나타났다고 한다. 19세기 전반에 증류주는 하층시민들이 주로 마셨다고 한다. 브르조아 계급이나 귀족들은 독일산 화이트 와인이나 프랑스산 레드와인이나 꼬냑을 마셨다고 한다. 20세기 초반에 와서야 맥주가 산업화된 지역이나 바바리아 지역의 노동자 계급들이 선호하는 술이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맥주 가격이 다른 술 보다 싼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오늘날은 맥주가 계층과 아무 상관 없이 누구나 마시는 대중주가 되었다. 물론 각 지방마다 나는 특산주는 그 지방 사람들이 즐겨 마시게 되므로 별개의 문제였다. 와인을 만드는 지방에선 와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증류주를 제조하는 지방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자주 마시는 사람이거나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맥주를 가장 즐겨 마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독일인들이 맥주만 마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 와인은 독일인이 두 번째로 즐겨 마시는 술이다.

와인을 매일 마시는 사람들은 와인 선호자 중에서도 1%밖에 안 되지만 가끔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은 꽤 된다. 누가 어떤 술을 마시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는 술값인데 독일도 예외가 아니다. 와인 가격이 맥주보다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와인을 마신다.

일요일 만찬, 축하하는 자리, 의식이 행해지는 곳에서 와인이 소비된다고 보면 된다. 더욱이 여성들이 와인을 즐겨 마시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이다.

브랜디나 위스키, 리큐르 등 증류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증류주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와인과 마찬가지로 많지 않다. 독일에서도 증류주는 통상 남성들이 가끔 마시며, 맥주와 섞은 폭탄주를 마시기도 한다고 한다. 상층시민과 중산층들은 수입 증류주를 즐겨 마시고 있으며, 노동자 계층은 독일산 증류주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이 좋아하는 증류주는 단 맛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독일인의 음주성향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다. 맥주가 가장 대중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와인을 즐기는 새로운 소비자층이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나 여성층에서 그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증류주는 세금인상으로 인한 가격상승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을 이유로 수요가 줄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맥주소비자가 대폭 늘고, 와인 인구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저도주 선호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의 추세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여성음주와 청소년 음주는 독일에서도 큰 문제

독일 남성들의 음주량과 음주빈도는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관계가 없지만 음주선호도는 사회경제적인 계층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가격이 비싼 술이나 수입주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몫이 된다. 독일의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비싼 술이나 수입주가 독일인에게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득과 음주와의 관계는 여성들에게서 분명히 나타난다. 고소득자이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

< 표 2 > 주종별 음주빈도의 변화

(단위: %)

음주빈도		1976년	1978년	1980년	1984년	1987년	1990년
맥주	매일 정기적으로	16	11	13	14	13	11
	1주일에 여러 번	12	11	11	17	15	15
	1주일에 1 번	34	27	20	28	26	30
	가끔	17	16	21	11	11	10
	안 마신다	21	34	34	30	33	33
와인	매일 정기적으로	3	3	3	3	2	2
	1주일에 여러 번	6	4	6	6	5	3
	1주일에 1 번	46	35	30	29	27	29
	가끔	32	31	28	37	34	35
	안 마신다	13	26	31	26	31	29
증류주	매일 정기적으로	3	3	3	2	2	1
	1주일에 여러 번	4	2	5	4	3	3
	1주일에 1 번	30	20	17	16	19	19
	가끔	28	22	22	25	22	26
	안 마신다	34	34	52	53	52	49

성들은 정기적인 음주기회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술은 와인이다.

〈표 3〉 음주자 유형별 남녀비교 (단위: %)

구 분	남성	여성
금주 또는 가끔 음주	13	32
적정음주 (1주일에 140g 이하)	43	55
과음자 (1주일에 280g 이하)	20	9
고도음주자 (1주일에 280g 이상)	24	4

독일 남성과 여성의 음주유형자 비교 결과를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술을 안 마시는 여성이나 1년에 1-2잔정도 입에 대는 여성은 32%, 남성은 그러한 사람이 13%에 불과하다. 한편 과음하는 남성은 44%이고 4명 중 1명이 매우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다. 어느 나라나 상습음주자들이나 문제음주자들은 조사할 때 음주량을 낮게 적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량으로 볼 때 문제음주자라고 할 수가 있다. 결론은 독일 남성들은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맥주를 즐겨 마신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생맥주를 마시는 명소 베티스

자료를 보면 독일 여성들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적정하게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맥주, 와인, 증류

주 모두 적게 마신다. 그렇지만 여성 문제음주자가 13%나 되는 것은 여성들의 술 문제가 문제수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남성들은 주종에 상관없이 과음을 하는 사람이 많다. 폭음자도 상당수 된다는 통계조사 결과가 있다. 술 마시는 남성들은 필름이 끊어지는 현상을 자주 경험한다고 한다. 필름이 끊어진 경험은 여성의 경우 6%, 남성의 경우는 1/3 정도나 된다. 대부분의 남성은 정기적으로 폭음과 과음을 일삼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남성과 여성은 음주나 만취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과 마찬가지로 또래들의 음주강요 압력에 시달린다. 독일에는 “일생에 한번도 취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사나이가 아니다”는 금언이 있을 정도이다. 즉, 독일 청소년들의 과음은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가 된다.

청년이 군대에 가게 되면 대부분 정기적으로 음주를 하게 된다. 군대에서의 음주는 물론 ‘단지 즐기기 위한’ 수단이고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지만 이 때 가지게 되는 음주습관이 평생을 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누군가에게 술을 한잔 사는 것은 남자세계의 덕목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청년들은 음주기술을 자랑하려고 음주게임을 일삼아 과음에 시달린다. 그리고 군대 이외에도 학생클럽이나 기숙사에서 술을 많이 마신다. 많은 청소년이 알코올을 오용하게 되고, 일부는 알코올에 중독 된다.

한편 다행스럽게도 독일 소녀들은 소년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또래 압력도 많지 않고 마시더라도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 뿐이다. 적정한 음주를 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남학생들과 다른 점이다. 특히 여학생이 만취하는 것은 금기시 되고 있다.

독일의 주점에서는 마시고, 떠들고, 카드놀이 하거나 친구들과 사교생활을 하게 된다. 이때 여성은 남성과 같이 오지만 취한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가거나 술이 깨도록 돕는 것이 그들의 임무가 된다.

물론 일부 여성들의 경우 그러한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1990년대 중반 때 까지 확인된 자료에서는 그러한 역할이 일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5. 독일의 술집들과 음주의 역할

맥주의 나라 독일 내에서도 음주문화는 확실히 다르게 형성된 것이 있다. 생산지역별로 다른 주종이 선호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자연히 지역간 음주패턴과 음주습관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지만 전국 어디가나 비슷한 것도 많다. 목로주점(Kneipe), 여관겸용 주점(Wirtshaus), 작은 주점(Weinstube), 비어가든(Bier Garten)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주점들은 맥주, 와인, 증류주나 칵테일 등을 마시는 장소이다. 독일의 공공음주장소를 알아보려면 중세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역사를 전부 살펴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독일 전역에 퍼져있는 펍(Pub)이나 바(Bar), 살롱(Saloons), 볼룸(Ballrooms), 비어홀(Beer Hall) 등은 19세기에 대다수가 생겨났다. 그 당시 하층민들의 스트레스 관리에는 술집만큼 좋은 것은 없었다. 앵겔스의 자료를 보면 산업혁명 초기의 노동자의 생활조건은 매우 나쁜 상황이었다고 한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집보다는 밖에서 퇴근 후의 자유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일부 사장들은 공장 근처에 주점을 차려놓고 시장가격보다 더 높게 받아 추가 이윤을 챙겼다고 한다.

즉, 독일의 펍은 산업화가 진전된 이후 노동자들의 휴식장소였던 것이다. 펍이 '가난한 자들의 사교장소'라는 것은 영국이나 독일이 유사하였다.



600여종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브레멘 시청 지하 술집

1869년에서 1900년 사이에 사회민주당이 강력한 정치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펍은 사민당원들의 집회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일은 1878년- 1890년 까지 사민당이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남성들은 펍에서 '맥주'를 주문하였고, 정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찰들은 사민당원들이 자주 모이는 펍을 기습하였으나 일반 손님과 사민당원을 구분하기는 어려운 노릇이었다. 이렇게 펍은 노동자들의 피로회복처이자 은신처로서 기능하였다. 그 이후로 독일의 펍은 일반적인 파티장소로 변화해 갔다. 독일의 사민당은 펍의 태동에 관여한 셈이 된다.

지금은 펍이 정치가 논의되는 곳이 아니다. 다만 술을 마시기 위해 오는 곳일 뿐이다.

6. 악명 높았던 독일 음주문화의 현장인 '펍(Pub)'

독일의 펍과 음주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자면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

인 펍은 노동자들의 숙소에 가깝게 위치해 있었다. 당시의 펍은 멋진 가구 장식이 없는 단순한 장소였다. 구조는 대체로 입구에 바가 위치해 있고, 속에는 테이블, 의자, 벤치 등이 있는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었다. 실내조명은 어두운 편이었고 맥주잔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다.

맥주는 펍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류였다고 한다. 물론 나중에는 증류주도 판매된 것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와인이 판매된 것은 물론이다. 와인의 산지인 팔라티네이트 지방, 라인계곡 지방에서는 펍에서 와인을 팔지만 다른 지방에서 와인을 마시려면 레스토랑으로 가야 한다. 독일의 술 마시는 곳에는 대체로 여성들을 위한 시설이나 특별한 자리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대부분의 손님이 남성이기 때문이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도 독일의 펍에는 단골손님들이 있다. 어느 나라 술꾼들이라도 저녁시간 휴식을 구하기 위해 단골 술집을 하나쯤은 만들게 되는 되는데 독일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독일술집의 단골손님들은 일주일에 한 두번 들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일부 손님들은 거의 매일 와서 술을 마신다.

독일의 노동자들은 직장일이 끝나자마자 단골집에 와서 맥주 한 두잔을 마시게 된다. 주로 바에 둘러서서 마시거나 바텐더나 다른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혼자 마시는 사람들도 있다.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까지는 술집 안이 조용한 편이다.

독일의 술집에서 여성손님들은 환대를 받지 못하는 편이다. 바는 대체로 남성들의 차지가 되고 용감하게 술집으로 들어선 여성 고객은 적대적인 상황에 놓이거나 일종의 성과 관련된 부당행위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사회학적 용어로 설명하면 그 경우 여성들이 남성의

영역을 침범했거나 허용되지 않은 일을 시도한 것이 된다. 독일의 펍에는 문자화되지 않았지만 지켜지는 법칙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 금기들은 대체로 여성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독일 맥주집의 내부

통상 일찍 온 손님들은 30분 정도 술을 마시다가 떠난다. 그 중 일부는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그 때 혼자 오는 사람, 친구들이나 부인과 오는 사람 등 다양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펍에서 음식을 많이 파는 것은 별로 없고 음주위주의 장소이다. 저녁 8시나 9시가 되면 술집은 많은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 때 술집 속은 큰 소음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진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술을 마시게 되므로 술집 안은 매우 혼잡하다. 더욱이 담배를 피는 것이 일상적이니 상상만 해도 어지럽다. 처음에는 대체로 웃음소리도 가득 찬다. 취기가 들면 분위기가 상승하고 목소리는 점점 커진다. 금기야는 가끔 더 큰 아우성이 벌어지기도 한다. 독일에서도 일부 펍에서는 싸움이 자주 벌어진다. 또한 어떤 펍에서는 그런 일이 매우 드물다. 그러한 차이는 주로 바텐더가 취객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달려있다. 독

일의 음주문화를 가름하는 주인공이 바텐더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금 과음을 일삼는 손님을 잃더라도 취객에 대해 엄격하게 하는 규칙을 가져 술집을 우애와 평화의 장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텐더가 있다. 그 술집의 단골손님들은 그 분위기를 좋아하여 자주 들르고, 오히려 오래 머문다. 어쨌거나 독일에서도 술꾼마다 선호하는 술집의 유형은 각각 다르다.

7. 독일 음주문화의 명암과 과제

독일의 음주문화는 그야말로 대폭 개선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펍에서 서로 소리치기는 하지만 격렬한 싸움까지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1800년대 초기의 노동자들의 음주형태와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독일의 펍에 대해 기술한 자료를 보면 술집에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일이었다고 적혀있다.



독일 뮌헨의 맥주축제

오늘날에도 예외적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바로 뮌헨의 맥주축제(Oktoberfest)나,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Weina-chtsbock Bier)와 같은 축제, 그리고 대규모 행사가 음주와 함께 벌어지는 경우가 그렇다.

세계적인 축구경기가 벌어지는 날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맥주축제의 광경은 다음과 같다. 낮에는 가족들이 공원에 모여 오락을 즐긴다. 밤에는 끝없이 술을 마시고 취한 광경이 재현된다.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 독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술에 취해가는 모습을 그 축제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그 날은 모든 규율이 사라진다. 경찰마저도 그러한 상황에 동조한다고 한다. 술이 주는 마력에 대해 독일인들이 함몰되어 가는 축제라고도 볼 수 있다. 절제로 유명한 독일인들도 그러한 상황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물론 술을 통해서 말이다. 그 결과는 누구나 상상하는 그대로가 된다.

싸움, 상처, 급성 알코올 중독, 보통 때와는 아주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그것이다.

오늘날 독일의 음주문화는 대체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술을 통한 야성적인 독일인들의 모습은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모든 과거의 좋지 않은 음주문화란 그렇게 완전히 변하거나 사라지기가 어려운 일인가?”라는 의문은 독일의 음주문화를 검토하면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화두가 된다.

8. 독일에서의 음주문화 변화 노력

사실 독일인들처럼 술과 일상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음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독일 사람들은 문제 있는 음주자들 때문에 정상적인 음주자들에 대해 피해를 주는 어떠한 제도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즉, 정부가 정책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방식 보다는 민간에서 또는 개인 차원에서 음주문

제를 다루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독일의 음주문화 변화는 오히려 사회의 발전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나 의식 있는 민간단체와 개인들의 노력, 주류업계나 술집 종사자들의 활동들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정부가 국가약물남용 통제계획(National Program on Drug Abuse Control)을 수립한 것은 1990년에 와서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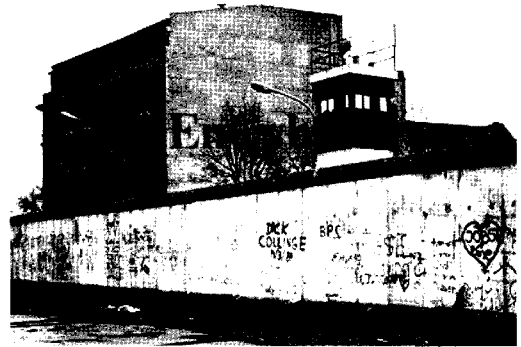
그 전에는 오히려 순수맥주법(Pure Beer Law)과 세입의 원천과 품질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인식정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법이 발효된 것은 1516년이었다.

민간에서 19세기에 절주운동이 일어난 것은 수세기 동안 계속된 독일의 악명높은 음주문화를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19세기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사회의 절주운동이 유행이 되다시피 한 시기였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청교도적인 종교 규범을 가지고 시작한 국가와 전통적으로 술을 오래 많이 마셔온 나라에서의 예방활동은 차이가 크다. 독일에서 민간이 체계적으로 예방활동을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독일의 주류업계도 주종별 협회에서 알코올 문제 예방활동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증류주협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로 증류주협회의 메시지는 “알코올문제를 가진 음주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맥주협회는 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 맥주 페스티벌 등에서 음주운전을 막고자 노력하는 행사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의 메시지는 “우리의 맥주, 현명하게 마시자!”라는 것이었다.

Copyright: German Agency



통독 이후에도 독일인들은 여전히 마시지만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독일에서는 주류의 판매시간이나 광고들에 대한 통제도 그다지 없고 자율적인 규범에 맡기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옳을 것이다. 1996년에 알코올 음료 판매시간을 자유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1976년에 독일 보건성과 주류업계는 자율적인 광고규약으로 광고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독일의 주류판매 업소수가 우유를 판매하는 곳 만큼 많다는 상황은 바로 우리나라를 보는 것과 같다. 허용적인 음주문화와 과음과 폭음의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음주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이외에 강력한 규제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일에서 건전한 음주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되는가? 한 국가의 음주문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험을 볼 때 종교, 사회규범, 법, 제도, 소득수준, 가격, 교육, 스트레스 해소 기전 등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독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唐詩 감상 / 韋應物的 詩

도팽택을 본받아(效陶彭澤)

서리가 내려 풀은 모두 시드는데
 때 맞은 국화꽃은 고이 피었다.
 物性은 제각기 이러하거니
 추위 더위가 그 어찌하리.

국화를 따서 막걸리에 띄우고
 저녁이 되면 農家에 모여
 초막에서 한껏 취하여 즐기나니
 일생이 어찌 많은 영화에 있으냐.

霜落悴百草
 時菊獨妍華
 物性有如此
 寒暑其奈何
 掇英泛濁醪
 日入會田家
 盡醉茅簷下
 一生豈在家